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6호 [루게 제25279호] 주제 105 (2016)년 5월 15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적 평도에 의하여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켜주고 내
조국의 휘황찬란한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현대적인
양묘장이 세상이 보란듯이
희한하게 건설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인민군대가 드리는 충정의
선물로 훌륭히 건설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
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
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인민무력부장
육군대장 박영식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현 동지, 국토
환경보호상 김경준 동지,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해당
부분과 건설에 동원된 군부대의 지휘관
들, 양묘장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2월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곳을 지식경제시
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
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21세기 양묘

장, 우리 나라 양묘장의 본보기, 표준
으로 전변시킬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결쳐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122호양묘장현대화공사가
품이 많이 들수 있지만 한번 잘해놓으
면 공업적인 방법으로 나무모들을
안전하게 생산할수 있다고, 자신께서

없이 완전무결하게 관찰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힘껏 밀어주겠으니 나라
의 만년대계를 위한 최대
의 애국사업으로 여기고
공사를 대담하게 내밀어
야 한다고 하시면서 설계
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투
입에 이르기까지 공사에
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안겨주신 전투적 과업을
심장깊이 새기고 떨쳐나선
해당 부문의 일꾼들, 군인
건설자들, 과학자, 기술자
들은 자강력제일주의정신
을 높이 발휘하며 낮과
밤이 따르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임으로써 짧은
기간에 세계적인 양묘장을
일떠세우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 충정의 선물
로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는 일꾼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립제전을 벌려 122호양
묘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양묘장으로
전변 시킴으로써 조선
로동당 제7차대회에 선물
로 드리자고 하였는데 인
민군대가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한치의 드림도

